

전남대병원 심장수술 달인, 카자흐 환자 치료 성공

정명호 교수 의료관광 사업 발판 마련

전남대병원 심장센터 정명호 교수는 이탈리아 의료진이 시술에 실패한 카자흐스탄 심장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해 화제다. 27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심장센터 정명호 교수팀은 아랄바이씨의 심장 혈관이 이미 순상된 상태라 위험 부담이 커 있으나 수술 당일 1시간여 만에 우측 관상 동맥에 혈액을 공급하는 시술에 성공했다.

시술 후 상태가 호전돼 27일 퇴원한 아랄바이씨는 “수술 성공으로 매우 좋아졌다”며 “한국인들과 전남대병원 정명호 교수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정 교수팀의 시술 성공은 올해 개원 100주년을 맞는 전남대병원의 명성을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의료 관광사업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정명호 교수는 현재 대한심장학회가 지명한 한국인 급성 심근경색증 등록연구사업의 총괄 책임자와 2008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심장질환 치료기술개발 특성화 연구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다.

전남대병원 심장센터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심근경색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동물심도자실을 개설해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장성 나노바이오센터에 한국 심혈관계 스텐트 연구소를 개설한 데 이어 오는 10월 13일 스텐트 공장 준공식을 갖는 등 국립 심혈관센터 유통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심장센터에는 정명호 교수의 명성을 뒤받침하듯 그의 시술과 연구를 배우고자 일본과 인도에서 2명의 의사가 각각 6개월, 1년 간 연수를 받고 있는 등 외국 의료진의 연수도 줄이고 있다.

또한 전남대병원은 매년 대한심장학회, 대한내과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정명호 교수 27일 성공적으로 심장 시술을 받은 카자흐스탄 환자 아랄바이씨의 퇴원 직전, 병실을 방문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전남대병원 제공>

‘경암 학술상’ 이광희 교수 등 5명 선정



국내 최고 수준인 부문별 1억원의 상금이 수여되는 ‘경암(耕巖)학술상’ 수상자로 광주기원 이광희 교수, 김지하 시인 등 5명이 선정됐다.

경암교육문화재단은 27일 제6회 경암학술상 수상자로 ▲인문·사회부문 박경환 교수 ▲자연과학부문 고려대 조민경 교수 ▲생명과학부문 이화여대 이원재 교수 ▲공학부문 광주과학기술원 이광희 교수 ▲예술부문 김지하 시인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주과학기술원 이 교수는 세계 최고 효율의 고분자 태양전지를 개발한 공로로, 김지하 시인은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상가로서 평생을 미학 자체에 대해 친절하게 탐구해 온 업적으로 각각 학술상을 받게 됐다.

경암재단은 태양그룹 솔송조 회장이 사재 1천억원을 털어 2004년 설립한 재단으로 헌암상과 청암상, 인촌상에 이어 국내 최고 수준의 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시상식은 11월 5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서울평화상 수상 ‘엘 시스테마’ 창시자 아브레우 박사

음악으로 빙곤청소년 30만명 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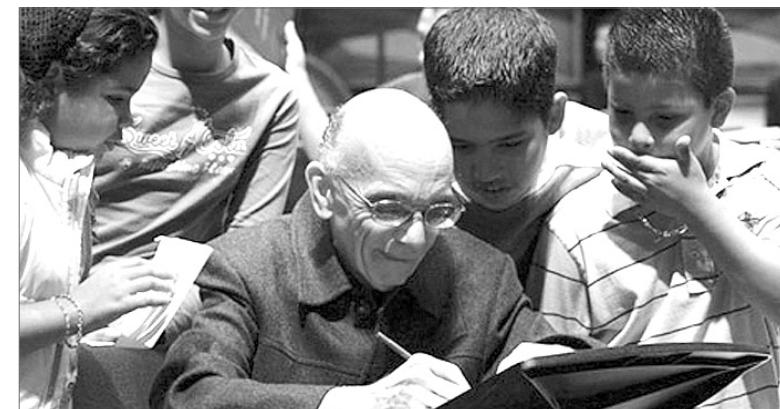
음악을 통해 빙곤층 청소년을 밝은 세상으로 이끈 ‘엘 시스테마(El Sistema)’의 창시자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71·베네수엘라) 박사가 서울평화상을 받았다.

서울평화상위원회(위원장 이철승)는 27일 “빙곤층 청소년 교육 및 사회 복지 개선을 위해 ‘엘 시스테마’라는 사회적 시스템을 창안하고 운영에 혁신한 베네수엘라의 지휘자, 작곡가이자 경제학자인 아브레우 박사를 제10회 서울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939년 베네수엘라 트루히요에서 태어난 아브레우 박사는 수도 카라카스 소재 호세 앙헬 라마스 고급음악학교에서 작곡, 피아노, 오르간 등을 배우고 조교수와 대작곡가를 거쳐 지휘자로서도 명성을 얻었다.

아브레우 박사는 1975년 마야족 출

기, 폭력과 범죄가 넘쳐나는 카라카스의 빙민가 차고에서 빙곤층 청소년들



의 교육 및 재활을 위해 전과 5볍의 소년을 포함한 11명의 청소년에게 사제를 들어 악기를 사주고 연주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등 음악교육을 시작했다. 그리고 더 많은 빙민층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베네수엘라 정부에 제안해 청소년 예술 교육 시스템인 ‘엘 시스테마’를 탄생시켰다.

‘엘 시스테마’를 통해 지난 35년간 30만 명의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악기

를 나눠주고 교육한 아브레우 박사는 거리를 배회하던 아이들에게 소속감을 주고, 질서, 책임과 의무, 배려 등의 가치를 익히게 해 청소년 자신은 물론 이웃을 빙곤과 무질서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회복지와 개혁의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시상식은 다음 달 27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상장과 상패, 20만 달러의 상금이 수여된다. /연합뉴스

배용준·이나영 환경달력 제작 무료 참여



배용준과이나영, 김현중 등 톱스타들이 환경달력을 제작을 위해 동겼다.

27일 소속사 키아스트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최강희, 이보영, 봉태규, 이지아, 소이현, 환희, 흥수현, 김수현 등 같은 소속사

訪韓 세계 최고 요리사 7人

“한식, 세계서 통할 것”

세계 정상급 음식 전문가들이 한국 음식의 세계화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서울관광마케팅(주)과 한식재단은 한식을 통해 서울의 맛과 멎을 알리고 한식의 세계화를 이루고자 세계 정상급 세프(요리사)를 초청해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서울 고메(Gourmet) 2010’ 포럼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행사는 벨기에 최고의 분자요리 전문가인 상훈 드장 브르, 프랑스의 ‘미슬랭 3스타’ 요리사인 미셸 트와그로, 이탈리아 디저트 전문가 루이지 비아제토 등 세프 7명이 참석했다.

상훈 드장브르는 “고추장이나 간장 같은, 한국을 대표하는 다양한 음식재료가 글로벌 음식문화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며 “한식의 세계화에 높은 가능성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전통은 좋은 것이지만 수출하려면 좀 더 모던하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루이지 비아제토는 “한국에서는 밀푀유 식품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시장에서 한국 음식재료의 향을 맡아보니 충분히 세계적인 음식이 될 수 있겠더라”고 말했다.

미셸 트와그로는 “간단한 디저트로 분다”며 “소개하기 좋고, 복잡하지 않고, 한국의 정체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불고기가 세계화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환갑때까지 200회 도전할 것”

6년간 마라톤 100회 완주한 박경오씨

“많은 곳을 다니며 마라톤을 했는데 고향에서 동호인들의 축하속에 100회 완주를 해 기분 좋습니다. 환갑때까지 200회 완주에 도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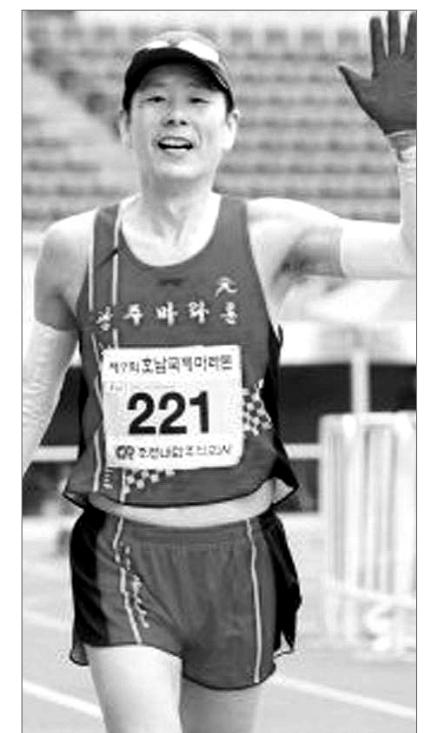
광주마라톤클럽의 부회장 박경오(52)씨가 100번째 42.195km 질주에 성공했다. 박씨는 26일 고성에서 열린 제9회 삼진강 마라톤대회에서 4시간11분 만에 결승선에 들어오면서 100회 완주를 이뤄냈다.

2002년 걷음을 위해 마라톤을 시작한 박씨는 발바닥 부상으로 대회에 나서지 못했던 2004~2005년을 제외한 6년 동안 100회 완주를 달성했다.

2002년 김제 마라톤 대회에서 처음으로 풀코스에 도전했던 박씨는 2007년 중앙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21분을 기록하며 자신의 최고 기록을 세웠다.

허리 부상으로 올해는 출전하지 못했지만 호남최대 마라톤 축제인 3·1마라톤에서도 두 차례 서브4(풀코스를 4시간 이내 완주)를 기록했다.

“마라톤을 어려운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몸 관리를 잘하면 누구나 풀코스 완주가 가능합니다.”



박씨는 주 3회 동네 운동장을 10~12km가량 뛰면서 체력관리를 하고 있다. 주말에는 클럽 회원들과 무등산을 달리며 훈련을 해오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준영 전남지사 ‘한·중 우호 공헌상’

전남도는 “박준영 전남지사가 주(駐) 광주 중국 총영사관이 주는 제1회 한·중 우호 공헌상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 상은 한·중국 간 우의를 다지는 데 이바지한 광주, 전남·북, 제주 지역 정부기관, 학교, 기업, 우호단체 등 각계 인사 중 공로가 큰 기관·단체장에게 준다.

전남도는 박 지사 취임 후 중국 저장(浙江)성, 장시(江西)성, 상하이(上海) 등 10개 성시와 자매결연, 우호교류를 체결해왔다.



수상식은 28일 광주 광대중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며 외자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박 지사를 대신해 정순남 정무부지사가 수상하게 된다.

/김지미기자 dok2000@kwangju.co.kr

내방

▲박표진(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씨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족

▲손정옥·박일순씨 장남 상원(연합뉴스 광주·전남취재본부 기자)군 최성권·위경애씨 장녀 혜진(KBS 광주방송총국 기자)=10월 3일(일) 낮 12시 서구 KBS 광주방송총국 공개홀.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062-671-4050.

▲인터넷으로 주례신청=검색창에 ‘주례나라’를 검색하면 어디서나 결혼식에 검증된 주례선생님을 모실 수 있다(단, 제주도·울산시 제외) www.juree.ck.kr, 061-245-3350.

▲프네 학습증진컨설팅 저소득

층자녀 무료상담=학교부적응, 성적부진, 성적저하, 교우관계, 정서장애, 게임중독 등. 010-6392-7137.

▲지적장애인 성인 주·아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광주 번역 통역원=각종 서류, 무역·이민 비자 해외유학서류, 각종 배뉴얼, 특히번역, 논문초록 등 전문 번역실 운영. 062-431-4788.

▲인구보건복지협회 성폭력상담소=성폭력(의료, 법률, 상담지원), 청소년성상담 및 성교육 등. 062-673-1366, 062-671-4050.

▲사회복지법인 수원실비빌 노인 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 판정 1~2등급 인정받은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등. 062-959-2340.

▲아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위기지원

갈등·가족갈등·체류·국적취득 등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 할 때,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로 인해 긴급보호가 필요 할 때 자국어로 상담 및 보호시설 연

계가 가능한 기관·경찰·병원·보호시설 및 유관기관들이 요청하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통역을 통한 긴급지원서비스함. (광주센터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062-366-1366, 367-1577, 368-1577.

▲광주생명의 전화(대표 소진택) 24시간 전화상담(1588-9191)=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일반 면접 상담, 위기 가족문제, 자녀문제, 자살 등 상담. 062-223-9191.

▲사주 쉽게 배울 분 개인·단체 환영=광주시 북구 우산동 자답역 리학회. 062-263-0208.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위기지원

(출산·양육·응급상황발생시 아이 병원비·생필품), 상담·정보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

원 062-234-5792. (http://gj-dongfc.familynet.or.kr/)

▲발관리 전문 상담=무겁고 피곤한 발, 각질, 무좀, 갈라진 발, 붓는 발 등, 광주시 북구 풍향동 백립암 복정형외과 옆 베네수. 062-266-6657.

▲용마 축구클럽 회원=건강한 생활 축구에 관심 있으신 분 환영, 용산 초등학교에서 매주 일요일 오전 7~11시까지. 011-607-7462.

▲오비오씨 별세 경용·경화·경미 씨 부친상=발인 28일(화) 무등장 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명점심씨 별세 김옥진·대영·대식·성순·순희·현숙 씨 모친상=발인 28일(화)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div